

‘베테랑’ 나지완, 올해 KIA 주장 맡는다

“명문팀 주장 영광...무거운 책임감 느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조력자 되고 싶어”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타자 나지완(36)이 2021시즌 주장을 맡는다.

KIA는 13일 “맷 윌리엄스 감독이 2021시즌 선수단을 이끌 주장으로 나지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전체 5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은 나지완은 줄곧 한 팀에서만 뛰 ‘원 팀 맨’이다. 주장을 맡는 것은 올 시즌이 처음이다.

나지완은 “2008년 입단 때부터 줄곧 뛰어서 팀에서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주장을 맡게 됐다. 명문팀 주장이라는 큰 영광과 함께 기라성 같은 선배들처럼 해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주장은 감독님, 코치진과 선수단 사이에서 좋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진 만큼 나

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윌리엄스 감독이 주장으로 선임하며 ‘선수들을 잘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는 나지완은 “감독님이 선수들을 믿고, 자율에 맡기지만 그 안에 뚜렷한 메시지를 담은 스타일”이라며 “그 래서 주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선수들 모두가 감독님이 강조하는 ‘준비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팀의 강점으로 ‘젊음’을 꼽은 나지완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늘어 팀 내에서 내가 3번째로 나이가 많다. 후배들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선수들이 4-5살 차이”라며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팀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지완은 “올 시즌 무조건 5강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선수들이 지난해 좋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살린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부상만 없다면 올 시즌 우리는 분명히 가을야구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출전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공수에서 지난 시즌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미희기자

PGA 파워랭킹 ‘1위’ 임성재, 소니오픈 새해 첫 우승 도전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660만달러)에서 새해 첫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14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라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개최되는 소니오픈에 출격한다.

PGA 투어는 지난해 이어 2주 연속 하와이에서 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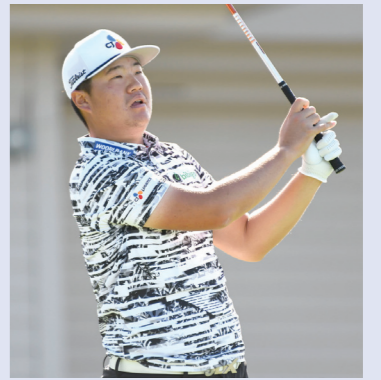
임성재는 지난 11일 막을 내린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인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5위에 올랐다. 대회 내내 안정된 경기 감각을 보여줬다.

새해 첫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임성재는 다시 한 번 정상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에서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거머쥔 이후 아직 우승이 없다.

PGA는 우승 후보를 예측하는 파워랭킹에서 임성재를 1위로 선정했다. 폴린 모리카와, 웨브 심슨(이상 미국)을 2, 3위로 예상했다.

PGA는 “임성재가 앞선 대회에



서 ‘그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얻은 타수’ 부문 1위에 올랐다”며 파워랭킹 1위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심슨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와 함께 강성훈(34), 김시우(26), 이경훈(30), 양용은(49)이 도전장을 던졌다.

2008년 이 대회 우승자 최경주(51) 역시 출격을 예고했다.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해리스 잉글리시(미국)와 디펜딩 챔피언 캐머런 스미스(미국)는 왕좌 수성을 노린다.

뉴시스

손흥민 “200~300골 넣어도 차범근·박지성 넘기는 불가능”

JTBC 뉴스룸·네이버 통해 배우 박서준과 비대면 인터뷰



새해 축포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입단 후 100번째 골을 터트리며 구단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손흥민(29)이 한국 축구의 선구자인 차범근(68)과 박지성(40)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12일 JTBC 뉴스룸과 네이버가 공개한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 통산 100골을 달성한 소감과 팬들이 보낸 질문에 답했다.

배우 박서준이 서울에서 질문하고, 손흥민은 런던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에서 화상으로 답했다. 국내에선 JTBC, 런던에선 토트넘 공식 채널인 스포츠TV가 각각 촬영했다.

손흥민은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기록도 깨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기록이라는 게 항상 깨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대한민국의 젊은 선수가 빨리 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EPL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43분 해리 케인의 크로스를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토트넘 통산 100호골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EPL 65골,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2골, 리그컵 3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4골, 유로파리그(예선포함) 6골을 기록, 100호골을 완성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18번째다.

손흥민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을 묻는 질문에 “모든 골이 다 소중한데, 하지만 그중에서도 데뷔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뛰면서 데뷔전에서 골을 넣고, 토트넘에서도 두 번째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항상 데뷔골이 기억에 남고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

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손흥민은 100m가 몇 초나는 질문에 “축구 선수는 100m보다 짧은 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한 12초 정도 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흥민은 유럽에서도 보기 드물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선수다. 토트넘 100골 중 오른발로 55골, 왼발로 41골을 넣었다. 그는 “왼발이 오른발보다 정확하고, 오른발이 왼발보다 좀 더 강하다. 어느 위치에서든 양발 훈련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페네티박스 좌우 모서리에서 반대쪽 골문을 향해 날아가는 일명 ‘손흥민 존(zone)’에 대한선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면서 “처음에는 그 위치에서 슈팅을 잘하지 못했다. 존이라고 말하기 창피하다. 모든 원자가 좋아하는 위치다. 그 자리에서 훈련을 정말 많이 했다”고 말했다.

토트넘 12월의 골로 선정된 아스널전 중거리 골에 대해서 몸이 자연스레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슛을 때렸을 때 떴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더라”면서 “경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손흥민에게 ‘양방업자’라는 재밌는 별명이 있다. 분데스리가 시절 노란색 홈 유니폼을 사용하는 도르트문트에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도르트문트와 경기를 자주 하고, 골을 넣다 보니 주변에서 노란색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다. EPL은 여름과 겨울에 축구가 색깔이 바뀌는데, 노란공으로 넣으면 색깔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골키퍼가 노란색 유니폼을 입어서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축구에선 흔한 일이다. 조금 와전된 것 같다. 하지만 저도 계속 듣다 보니 속은 기분이 든다”고 웃었다.

축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시절을 떠올렸다. 손흥민은 “이러운 질문”이라며 “함부르크에서 17세 때 처음 1군에 콜업돼서 훈련을 하러 갔는데, 루드비히 니스텔루이 등 유명한 선수들을 봤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다시 느끼고 싶은 기분”이라고 꼽았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축구 인생의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토트넘 100골과 함께 지난 6일엔 유럽 무대 통산 150호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시스



한나래, 피롱코바에 저

호주오픈 예선 2회전 탈락

한나래(29·인천시청·204위)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예선 2회전에서 탈락했다.

한나래는 12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예선 2회전에서 츠베타나 피롱코바(34·불가리아·136위)에 1-2(0-6 6-3 1-6)로 졌다.

지난해 처음 호주오픈 단식 본선을 경험한 한나래는 이번 패배로 2년 연속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나래를 꺾은 피롱코바는 2010년 윌블던 4강까지 오르고, 그 해 세계랭킹 31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2018년 4월 아들을 낳고 지난해 돌아온 피롱코바는 복귀전이었던 US오픈에서 8강까지 오르며 건재를 과시했다.

한나래는 피롱코바를 상대로 1세트 첫 세 게임에서 연달아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세 게임을 내리 한나래는 한 게임도 따내지 못한채 1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 자신의 첫 서브게임을 6차례 듀스 끝에 가져오며 기세를 살린 한나래는 게임 스코어 1-1로 맞선 자신의 두 번째 서브게임에서 9번이나 듀스까지 가는 험투 끝에 서브게임을 지켰다.

이어 상대의 서브게임을 따낸 한나래는 리드를 잘 지켜 2세트를 가져가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나래는 3세트에서 자신의 서브게임을 두 차례나 브레이크 당해 게임 스코어 0-4로 뒤졌고, 반격하지 못한채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올해 호주오픈 본선은 2월8일 호주 멜버른에서 막을 올린다. 당초 1월 중순 개막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다.

예년까지 호주오픈 예선은 개막 직전 멜버른에서 열렸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을 약 1개월 앞두고 여자부의 경우 UAE 두바이에서, 남자부는 카타르 도하에서 예선이 치러진다.

올해 호주오픈 남자 단식 본선에 권순우(24·당진시청·95위)가, 남자 복식 본선에 남지성(28·세종시청)-송민규(31·KDB산업은행) 조가 올라갔다.

뉴시스

PBA 서현민, 5라운드 MVP 선정



웰컴저축은행의 서현민이 프로당구 ‘신한금융투자 PBA 팀리그 2020-2021’ 5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서현민은 5라운드에서 8게임에 출전해 8전 전승을 올리며, 웰컴저축은행을 5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려놓았다.

서현민은 직전 개인투어 NH 농협카드 PBA챔피언십의 우승자로 기세를 모아 팀리그 최다연승인 8연승을 달성했다.

서선욱기자

특히 단식에서 4승, 복식에서 4승을 올려 단식과 복식 모두에서 고른 활약을 선보였다.

웰컴저축은행은 3라운드 차우람과 4라운드 쿵드룡에 이어 5라운드서 서현민까지 연이어 MVP를 배출했다.

서현민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특히 우리팀에서 3연속 MVP가 나왔다는 사실이 영광스럽고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개인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도 좋은 영향을 줬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PBA 팀리그 5라운드 MVP 선정방식은, 매라운드별로 상위랭킹 1, 2위 팀중에서 개인성적 우수 선수를 가운데 경기력 이외에 팀운영에 대한 팀기여도 등을 평가해 PBA 경기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각 라운드 MVP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신한금융투자 PBA 팀리그’ 6라운드는 오는 2월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PBA 팀리그는 SBS스포츠, KBS스포츠, 빌리어즈TV를 통해 전경기가 생중계된다.

일본, 도쿄올림픽 반드시 개최 “재연기·취소 가능성 없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사활을 건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23일부터 8월8일 열린다. 당초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됐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인해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다. 만약 이번에도 올림픽 개최에 제동이 걸리면 사실상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 이외의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날 빌

게이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개최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세계에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최한다”고 말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역시 재연기, 취소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추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에 잠기거나, 고민하면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80% 이상이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는 3월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